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과 능률을 최고의 덕목으로 무의식중에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면 비록 그가 진보를 외치고 있다고 해도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산중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마리의 양과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의 생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한 마리의 양의 목숨과 아흔 아홉 마리 양의 불편을 저울에 달아 보라는 것이다. 양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는 목자는 당연히 한 마리 양을 위해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의 불편을 감내한다. 아버지는 한 자식을 위해 나머지 자식들의 불편을 감내한다. 하지만 경영을 목적으로 하면 달라진다. 기꺼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사람들을 잘라낸다. 그들이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거나, 당장 길로 쫓겨 나가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회사는 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있고, 남은 사람들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한다.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조금 불편을 함께 감수하면 모두 다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모두들 알고 있지만 입 밖에 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선진 경영기법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거짓말이다.

양을 찾아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라. 그것이 양을 맡긴 주인의 명령이다. 목자는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잘 돌봐서 좋은 털과 고기를 얻는 것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주인의 자본주의자는 아니다.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잘 돌보아서 각각 1%씩만 털이 더 나오게 하고, 더 살찌게 한다면 한 마리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구조다. 10% 증진시킬 수 있다면 100마리 중 10마리를 사육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게 자본주의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마치, 오늘날 반려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목자는 양을 가족으로 본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된다.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그교회는 2012년에 시작하는 작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그교회는 큰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생동감 넘치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그교회에 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메일 (eventia@gmail.com) / 트위터 (@jelicelimum) / 페이스북(아래)을 통해 교제할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jelicelimum>

교회 연락처 / 홈페이지

임성국목사: eventia@gmail.com // 트위터 @jelicelimum
02-996-2259, 010-8143-2259

교회 주소 / 약도

임시에배처소: 서울 강북구 수유2동 벽산아파트 12-603
(수유역에서 도보로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교회

The Church

주일 아침 예배 오전 11시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성경읽기	[태복음 18:10-20]	다같이
설교	설교자
“가족으로서의 한 마리 양”		
합심기도	다같이
찬양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주일 오후 성경공부 오후 2시

성경공부	3 월부터 시작합니다	임성국목사
------	----------------	-------



글 임성국

오늘 본문에 드러난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이야기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가는 개인의 모습과 대조해보면 천국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현실은 이렇다. 양 한 마리가 겪는 공포나 두려움보다 양 아흔아홉 마리가 두려워 할 권리가 우선시 된다.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70대 노인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들여다보면 송전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신고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탑을 거쳐야만 영남지역에 공급될 수 있다. 결국 누군가의 땅 위에 송전탑이 세워져야하고, 그것이 재수없게 밀양에 있는 주민들의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송전탑이 세워지는 부근의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땅의 책정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것과 주변에 있는 다른 땅들도 송전탑의 영향 때문에 이제는 팔리지도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의 불평을 잠재우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 실정에 맞추어 땅 가격을 지불하면 된다. 또 주변 땅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땅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면 된다. 문제는 그만한 돈을 지급하려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 들여야 한다는데 있다.

이야기속의 양 한 마리는 그저 산 위에서 슬피 울며 자기를 찾아줄 목자만 기다리면 되었지만 현실속에서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아흔아홉마리의 양들이 자기들의 일정한 이익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자는 과감히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의 목소리를 접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픔이 있다.

최근 나는꿈수다 팀의 발언 중 여성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한 여성이 비키니 차림의 사진을 올리며 정봉주 석방 시위를 했다. 그걸 보고 많은 남성들과 나꿈수팀에서 재미있어했다. 시위로만 보았으면 별 문제는 없었겠지만, 주변에서 보던 다른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오히려 "가슴도 적은 것들이", "열폭", "알바냐?" 등으로 비아냥거렸다. 문제는 점점 커졌다. 조금씩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겉돈다. 핵심을 피하며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만하고 접어라는 식의 대응이 시작된다. 나는꿈수는 대한민국 진보를 위해 상처받아서 안되니 사과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으며, 이런 여성문제는 극히 작은 것이니 나중에 선거 다 끝나고 해도 된다는 발언들이 시작된다. 역시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설교] 가족으로서의 한 마리 양 (마18:10-20)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다 남겨 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마 18:10-20)

1. (원편의 칼럼으로 대체함)
2. 본문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새번역에서는 '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잃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곧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어떻게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뜻이 정하고,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그런데,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자신이 반드시 하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어찌될까? 어쩌면 이 영역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지가 중요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꺾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다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양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사실 본문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기에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긴하다. 하지만 이전에 본 구절들에서 실족케 하는 일을 한 사람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게 낫다고까지 한 사람, 그는 작은자를 실족케 한 사람이다. 어찌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아흔 아홉 마리를 위해 한 마리 양을 기꺼이 버린 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양이 길을 잃은 것은 단순하게도 가서 찾아오면 끝이지만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는 그보다 복잡해진다. 본문에서는 바로 죄의 문제를 언급한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17:18)' 한 사람이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온다. 이 두 사람이 등장인물이며 주인공이다.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단 둘이 이야기를 한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둘은 다시 형제가 될 것이다. 하나니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첫째,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 할 것. 그 말은 용서를 담고 있는 말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빌 방법이 없을테니까. 둘째,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면 그 둘은 다시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는 복잡해지고, 최악의 경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 명령을 받게 된다. 더 이상 그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게 된다. 나는 이것이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의 마음을 품고 다시 찾아가서 말하고, 또 다시 몇 명이 찾아가서 말하고, 그래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님을 인정하고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노력한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겠다는 것이 아마도 18절에 나오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는 말의 뜻이 아닐까?

3. 그러기에 한 사람과 그에게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중요하다. 19절에 나오는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최소단위라고 보통 해석된다. 하지만 조금은 특별하게 한 사람과 그에게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든지 구하면(19)'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종종 '무슨 일'을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일로 보려고 들 한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말이 필요하거나 기타 등등 성공을 위한 제한 없는 간구로 종종 착각하게 된다. 두 사람이 모여서 돈을 벌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위 구절에 맞는걸까? 두 사람을 한 사람과 그에게 죄를 지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더 큰 돈을 벌기 원할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해보자. 부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자식을 고아원에 버렸다. 그리고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자식을 찾는다. 간신히 만난다. 어찌어찌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간신히 마음이 전달되었다. 자식은 이제 부모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그때 그 둘 사이에 합심하여 구하고자하는 것이 무엇일까? 로또 1등 같은 행운을 구할까? 아니다. 주는 쪽, 하나님 편에서는 제한없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된다. 그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를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가족으로 편안히 대할 수 있는 사랑,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사랑, 그런 사랑을 구하게 되지 않을까?